

투데이 칼럼

정읍 샘고을시장, '장소의 혼' 깨우자

오늘날 유통의 언어는 '속도'와 '편의'로 수렴된다. 손가락 하나로 새벽 배송을 부르고, 대형마트의 정제된 공간에서 규격화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 효율의 도식 속에서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불편한 공간'이거나 보호의 대상인 '박제된 과거'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의 괴로움이 극에 달한 지금, 사람들은 다시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이 찾는 것은 100원 짜 배추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결코 추천할 수 없는 '뜻밖의 발견'과 '사람 냄새 나는 서사'다. 전국에서 살아남았거나, 오히려 도시의 심장으로 도약한 전통시장들은 공통된 공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마트와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마트가 흉내 낼 수 없는 '시장다운(Marketness)'으로 승부한다.

통영, 안동, 속초, 정선뿐 아니라, 전주 남부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서울 광장시장 역시 같은 길을 걸어왔다. 통영 수산시장은 바다의 현장성을 극대화해 관광객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체험자'로 바꾸었다. 전주 남부시장은 청년상인들이 기획한 야시장을 통해 전통시장에 '밤의 시간'을 불어넣었고, 광장시장은 빈대떡과 육회라는 소박한 음식에 '원조의 서사'를 더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성장했다.

이들 시장의 공통점은 하나다. 상품은 비숫해도, 이야기는 다르다는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는 농·축산물에 강점인 샘고을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국적 명성을 가진 정읍 한우, 고소한 귀리, 내장산 자락의 제철 채소들이 가관대 위 상품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지의 얼굴과 땅의 이야기를 담은 '미식 소품'으로 연결될 때 시장의 경쟁력은 살아난다.

안동 전통시장은 시장을 '생활문화의 집약체'로 재정의했다. 종가 문화 제례 음식, 일상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시장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다.

정읍 역시 동화의 함성과 농경문화, 그리고 정읍 쌍화차 한 잔에 담긴 온기를 지닌 도시다. 샘고을시장은 불건단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정읍 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오가는 '도시의 거실'이 되어야 한다. 생활생(生活生)이 제거된 시장은 결국 생기 없는 세트장으로 전락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상인회의 자율적 조직력'이 있다.

대구 서문시장은 상인회가 주도해 야시장 운영 규칙을 만들고, 품질과

가격, 영업시간을 스스로 관리한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상인회가 공연 일정과 상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시장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운영한다. 행정이 모든 것을 설계한 시장보다, 상인이 주도권을 쥔 시장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다.

필자는 제8대 정읍시의회 시절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샘고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선진 시장을 견학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질서와 안전, 편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동형 가관대 도입, 고객선 지키기, 정기적인 소방차 진입 훈련은 상인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다지기였다. 특히 유한양행이 제공하는 허니마트 구간 초산로 좌우에 주차를 가능케 하되 1시간씩만 무료 주차를 하도록 한 교통 개선은 시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절실한 시도였다.

이제 물리적 토대 위에 정읍민의 서사를 입혀야 할 단계다.

속초문화관광시장이 실악산 관광객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듯, 내장산, 산내 구절초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정읍시공원을 찾은 이들이 샘고을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치밀한 관광 동선을 완성해야 한다. 정선아리랑시장이 노래 하나로 정체성을 만들었듯, 샘고을시장에도 정음사(井邑詞), 수제천(壽濟天), 정음우도농악의 리듬이 흐르는 상설적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인회는 시장 운영의 주체로서 질서와 콘텐트를 기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정은 간섭이 아닌 지원자로서 인프라와 제도, 마중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시민은 단순한 소비자 아니라, 시장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삼각 구도가 맞물릴 때 시장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전통시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고립과 단절의 시대에 인간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미래형 아날로그 공간이다.

샘고을시장이 살아남는 길은 외부의 화려함을 이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 인의 가장 '정음다운 것'을 발견하고, 상인이 주도하고 시민이 공감하며 행정이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1914년 개설된 334개의 점포와 500여명의 상인들이 112년을 견뎌온 샘고을시장이 이제 정음의 자부심이자 얼굴로 다시 서야 할 시간이다. 샘고을시장에 활기가 돌 때, 정음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다.

사설

말 그림 특별전

전주 (주)에이유선과 미술관 숲이 공동기획 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회화사의 거장들이 그린 다양한 말그림을 모아 관객들을 찾아온다.

말은 적극적으로 진취적이며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활발하고, 사 랑과 교감을 잘해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영리한 동물이다. 말(午)은 12지의 일곱번째 동물로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갖는다.

말 그림은 신라 고분의 날개 달린 천마(天馬), 천마총 벽화를 시작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쌍영총의 '기마인물도', 조선시대에는 민화 '수렵도'에서 말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총 12점의 말 그림을 선보인다. 양기훈(석연

1843~?), 안중식(삼전 1861~1919), 황성하(우청 1891~1965), 김은호(이당 1892~1979), 김중현(철마 1901~1953), 김기창(운보 1913~2001), 변시지(1926~2013), 김세중(1928~1986), 이월중(1945~), 서남수(우재 1948~)로, 조선시대부터 현대 한국화, 서양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제주의 조랑말을 테마로 그림들도 볼 수 있는데, 변시지는 고향 제주의 황토빛 풍경과 말을 함께 그려냈다. 이월중은 제주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추구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와 제주 정착의 이유를 '중도(中道)'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1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약 2달간 경원동 에이유선 1층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어느 마을의 신생아 출생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던 제주의 한 작은 마을에 2년 새 신생아가 7명이나 태어났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생 문제를, 지역 자체의 수익 구조로 풀어보겠다고 한다.

세 자녀와 함께 어느 30대 부부가 온다. 마을회관에 아이들이 들어서자 금세 온기가 퍼진다. 제주 시 한림읍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예뻐했는데 쌍둥이도 같이 태어나니까 다들 알아봐 준다.

마을에 다시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가 뜝 끊겼었는데 2년 새 7명이 태어났다.

지역 소멸 위기를 느낀 주민들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만든 덕분이다. 첫째 아이에겐 5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1,000만 원씩 파격 지원을 내걸었다.

고향을 떠날까 망설였던 청년들이 정착해 터전을 일구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마을 초등학교에도 희망이 생겼다.

이 마을 출신 중·고등학생에겐 연간 50만 원, 대학생에겐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출생 때까지 지원한다. 재원은 마을 주민 6백여 명이 만든 협동조합을 통해 마련한다.

마을 앞 바다에 생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기업에서 2백여 원을 빌려 투자하는 대신, 매년 7%에 달하는 고정수익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주민들은 "동네에 젊은 층들이 없고 그래서 생각한 끝에 출산장려금 주변 동네에 와서 살고 아기 낳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소멸의 위기를 딛고 세 생명의 반전을 일궈낸 제주도 작은 마을의 도전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독자제언

2차 사고, 한순간의 부주의가 생명을 앗아간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단순히 1차 사고에 그치지 않고, 뒤따르는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다시 추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월 평균 38명이며, 이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월 평균 7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2026년 1월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

이 발생하여 총 1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차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7배 높으며, 실제로 고속도로 사망자 중 17%가 2차 사고로 인한 것이고, 치사율은 56%로 일반 사고(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보여줍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기본적

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트박스(비상등·트렁크·밖으로 대피·스마트폰 신고)'를 기억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갖잡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과속·졸음운전·안전거리 미확보·전방주시 태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 현장에는 '사인카'와 'TMA(충격흡수차량)'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기본적

방향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은 사실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운전자의 주의를 책임 있는 행동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졸음운전과 과속 등을 삼가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작은 습관으로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운전에 힘써 더 이상 안타까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태섭 원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내·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 전주매일